



어느 사찰 인적 드문 들계단에 고개 빼꼼 내민 야생화 활짝 웃으며 반겨줄 준비 마치고 그 누군가를 향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.

기다림

전국문화사진초대작가회  
회원 김이화